

2019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사회제도 혁신(3분과)

「발표 내용 정리」

① 발표자: 테포 토르끼(Teppo Turkki) 주한 핀란드대사관 과학기술혁신 참사관 -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

가. 어떻게 공정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보장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제공하는지 접근하는 것에서 핀란드 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

나.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함

다. 기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 병행 됐을 때,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삶이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회 혁신에 필요한 조건

1) 민주사회 - 민주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 속에서도 소수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배려하는 다수 집단의 배려

2) 집단지성과 신뢰

→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

→ 과거와 달리 국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국민 참여가 정부 정책, 법,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원동력

○ 즉, 「시스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Sustainable)**이고, **장기 성장(Long-term Growth)**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

② 발표자: 간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장 - 「UN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 혁신」

가. 유엔이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은 사물의 변화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변화하는 혁명**

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인식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자는 주장

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기술 발전과 그것의 혜택으로 인한 인권 소외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UN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③ 발표자: 피터 베이하우젠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선임과학관 - 「네덜란드 정책과 사례」

가. 네덜란드 “스마트 인더스트리” 핵심 키워드 = **교육**

○ 세부적으로 스마트 인더스트리를 이룩하는데, **환경 변화에 유연해야 함**

○ 새로운 경영 트렌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함**

나. 스마트 인더스트리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핵심 정책 3가지

○ 정부, 기업, 학계가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

- 35개의 스마트 인더스트리 구축을 위한 실험실(Labs)과 중견/중소기업(SMEs) 참여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진행

- 산업 현장과 교육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교육 현장에서 육성하고, 교육 후 학생들을 견습생으로 실습 현장으로 투입 →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 방지

- R&D 연구비 지원 확대 및 다른 국가/기관들과 협력 강화

④ 발표자: 안더스 헥터(Ander Hektor) 주한스웨덴대사관 참사관 - 「스웨덴 4차 산업혁명과 사회 혁신」

가. 한국과 스웨덴은 ICT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분류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나.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 운영을 정부가 후원하고, 이 기관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협력 분야: IC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미래 유망 기술

○ 주요 특징: 산업/경영환경 국내외 트렌드 변화 분석, 후원 기업/기관 매칭,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실험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데이터 구축**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이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실험 진행
- 조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 및 운영지원(정부)

⑤ 발표자: 알렉산더 찬드라(Alexander Chandra) 아세안 사무국 통상·산업·에너지 이슈 담당관

- 가.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아세안 시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발전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 나. 동남아 6개국(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은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해 200억 달러 기금을 2025년까지 조성하기로 합의
- 다. 국내총생산과 1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대한 각국 지도자의 관심이 높음
 - 경제규모가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마트팩토리/제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음
 - 금융/물류 허브 국가인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분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라. 빠른 경제 성장과 다수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사업장을 두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기업과의 더 큰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토론 내용 정리」

토론 진행자: 조재희 고려대학교 교수

① 핀란드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것이 가능한 요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 젊은 세대의 사회적 참여를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병행
- 나.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젊은 세대의 정책적 관심사항은 여야 상관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병행
- 다.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그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험 + 의회의 적극적 지원

② UN이 제기하는 보편적 쟁점(인권, 인류애, 평화)과 기술 발전이 현실적으로 양립이 가능한지?

- 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
 - 국가 간 초월하는 보편적 이슈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음
 - 더 나아가,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가 야기한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각 기업들은 기업 윤리 부분에서의 더 빠른 대응 능력이 요구됨
- 나. 즉, 정보 공유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 눈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시대

③ 네덜란드는 노사협의 모델(바세나르 협약, 1991)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 이런 바세나르 협약은 정부/산학/학계/노동계 모두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참여해 궁극적으로 상호 "Win-Win"을 창출한 좋은 사례다. 한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고,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 가.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 정신은 바세나르 합의 이전부터 오랜 역사/문화/지리 등 종합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것
- 나. 다만 네덜란드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정당에서도 "갑을관계"가 있다면, 네덜란드 정당 간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정치 풍토는 아님
- 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이런 측면이 네덜란드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

④ 스웨덴 “복지” 정책은 한국의 롤모델로 인식되는데, 스웨덴은 현재 보편적 복지를 뛰어넘어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다. 보편적 복지와 혁신 성장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 지? 국가/사회적 신뢰가 그 밑바탕인지?

가. 앞의 네덜란드 사례와 유사

나. 국가와 사회에 보내는 국민 신뢰 측면에서 스웨덴은 자국 정부/정치권에 보내는 신뢰 수준이 매우 높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한 점이 양국 사이의 큰 차이점

다. 특히, “법 집행”에서의 평등. 즉,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심어주고, 일관성 있는 사법 정책을 유지한 것이 보편적 복지와 혁신 성장 간 양립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생각



202001572329557